

“마음 흔들리면 소리도 흔들려요”



▷ 진정한 우리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섬세한 청음능력으로 음을 조절해야 한다. 대금의 구멍을 다듬으며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장용해씨.

산문박의 樂

대금장인 장용해씨

한 바람은 밤시간을 저축하는데(寒風徹夜補)/ 어디선가 구슬픈 첫대소리(何處笛聲哀)/ 나그네 시름을 일찍우고는(啼引愁愁至)/ 다시 고향 생각을 아득히 이글어오네(去處想思來)

《부휴당(浮休堂)대사집》에 나오는 '첫대 소리 들으며(聞笛)'란 선시, 선사들의 고요한 마음도 고당길로 내달리게 하는 첫대 소리.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 번씩 듣고 아스리한 추억에 잠겨보았을 법한 정어하고 애절한 우리의 소리. 첫대를 부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어느덧 미묘한 선율이 하나가 된다. 그렇다면 '첫대'를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국악의 대표적인 관악기인 첫대(大笳)를 비롯, 중금 소금 단소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등 대나무로 만든 온갖 '첫대'를 30여년동안 만들어 온 장인(匠人) 장용해(53)씨. 전통적인 방법으로 옛것을 잇는 장인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대전시 대화동 아담한 작업실에서 변함없이 옛 소리를 되살리고 있다.

전남 담양이 고향인 장씨는 어려서부터 우리 소리를 좋아했고, 남달리 손재주도 뛰어나 전국을 유랑하며 피리제작 기법을 터득하는 등 국악기 제작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20세까지 생계를 위해 담양에서 대나무 문갑 등 죽공예품을 만들어 왔으나, 국악이 너무 좋아 한 평생을 부지각으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제작한 악기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30대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10여년간 악기를 만들어 거리의 악사 노릇을 했다. 소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고성을 고성으로 여기지 않고 전국을 유랑하며 제작기법과 연주능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

▷ 한 수련과정이 있었기의 그의 악기에는 생명력이 배어있다. 민중의 애환을 담은 온의 소리가 배어 나온다. 특유의 정교함과 섬세함으로 인해 그의 '장권(張權)'이란 아호가 널리 알려

지고, 그가 만든 악기들이 '남도(南道)피리'란 상호까지 붙여 팔리고 있는 것도 당시의 끊임없는 장인의 결과다.

"9년 장구, 10년 풍소"라는 말이 있듯이 피리 만드는 작업은 10년이상 작업해야 어느 정도 제작기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그는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 작업에 임할 때 한 순간 '비로 이거다' 하는 때가 온다"고 말한다. 마치 화두일념으로 장좌공부와 10년만에 공안을 타파한 선사의 오도 경지처럼.

이런 경지에 이르면 마음이 정갈하고 잡생각을 떨쳐 버려야만 좋은 제품이 탄생된다. 소음

전국유랑 피리제작기법 독파 소리가 좋아 30여년 첫대외길 수시로 산사참배 마음공부 "무욕의 생활 청정음 만든다"

이 들리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는 일손을 놓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작업에 임한다.

전남 담양, 경남 하동, 지리산 등지에서 최상품 쌍골대(雙骨代)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제작과정은 길고도 지루해 인내와 집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쌍골대를 8개월간 그늘에서 자연 건조, 대나무를 삶아 진액 빼기, 수공작업, 1주일에 한 번씩 조율(調音)하며 건조하기, 장식 및 실감기(대마가 안터지도록) 등 공정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모든 것이 헛고생이 된다. 특히 조율작업은 섬세한 청음(聽音)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거의 독학으로 갈고 닦은 그의 연주실력이 상당한 경지에 달한 것도 이런 이유. 악기 제작은 물론 소리감습까지 하게 된 것은 보다 청아한 소리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소리를 누구보다 즐기기 때문. 서울 외국어고 선생님들과 대전 동방여중 국악반을 지도하는 등 매달한 제자만도 2백여명에 달한다.

그의 악기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그가 아갈고 있는 1백50명의 용해산악회 회원은 물론 신심길은



▷ 대금은 최상품 쌍골대로만 만든다. 장씨가 쌍골대를 다듬고 있다.

불자인 부인 최희임(51) 보살과 함께 전국의 산사를 찾아 수시로 마음공부를 한다. 자연 속에서 산사를 참배하고 고즈넉히 대금을 불타지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자연과 하나된 기쁨으로 욕심이 살기에 그의 악기는 더욱 청정한 소리를 낸다.

"마음이 흔들리면 소리도 흔들려요. 마음을 제대로 바울 때 대금에서 오묘(妙妙)한 소리가 나오요. 산사를 참배하면 햇을 수북 텅 빈 바람을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산사를 다녀온 뒤 어느때보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대나무 육관장(六管杖)이나, 죽염주(竹念珠), 죽비, 관옥에 쓰이는 물잔 등 불교용품을 만든다. 특히 육관장을 만들 때는 어느 때보다 마음을 모은다. 여섯 개의 고리가 소리를 내어 미음을 살린다는 육관장은 구세구인과 뜻생명에 대한 자비와 법을 상징하는 지팡이, 도력이 높은 고승들이 주로 사용하는 법례의 상징이기에 여간 정성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발심한 때만 제작한다.

대나무의 고장에서 태어나 9세부터 우리 소리와 대나무에 빠져 한 길을 달려 온 그는 휴대용 대금, 대나무 타악기 등 국악기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의: 011-433-0343

김재경 기자(jkim@buddhania.com)

취재수첩 주말마다 인사동에 피리좌판

토요일 오후1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 대금 장인 장용해씨가 좌판위에 직접 만든 대금 중금 소금 단소 등을 진열해 놓고 손님들과 흥정을 하고 있다. 손님이 안모이면 대금을 불며 눈길을 모은다.

그러나 다가와서 문의하는 사람, 평화를 가져가는 사람은 많지도 적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다. 전문가용에서부터 일반용에 이르기까지 상품은 다양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

하지만 장씨는 악기를 파는 것도 좋지만 국악을 좋아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때때로 대금을 산 이들에게 무료로 3개월씩 소리감습까지 해준다.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 다방에서 지도한 제자들도 적지 않다. 3년 정도 걸리는 연주기법을 석달만에 숙달하도록 돕는단다.

대전에 사는 그가 매주 토·일요일 인사동에 좌판을 벌이게 된 원인은 IMF시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국악 동호인들의 악기 수요가 크게 위축된 때문. 2백여 곳에 달하던 거리에서조차 발길이 끊길 정도. 그러나 문화의 거리인 인사동에는 아직도 그의 악기를 찾는 동호인들이 있다는 것이 그의 작은 행복이다.

대전에 사는 그가 매주 토·일요일 인사동에 좌판을 벌이게 된 원인은 IMF시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국악 동호인들의 악기 수요가 크게 위축된 때문. 2백여 곳에 달하던 거리에서조차 발길이 끊길 정도. 그러나 문화의 거리인 인사동에는 아직도 그의 악기를 찾는 동호인들이 있다는 것이 그의 작은 행복이다.



▷ 인사동에서 부는 청아한 대금소리는 자연과 장인의 마음을 하나되게 한다. 장씨는 '마음 비우기' 공부를 위해 수시로 산사를 찾는다.



▷ 해인사 벽화 '달마승려도중도', 조선시대.

성인은 생사 자유자재

법화과 성화비고 33장면 21 부활

종교가 생긴 이유도 죽음이라는 생사(生死)의 문제 때문이다. 깊은 수행을 한 성인들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생사를 자재하게 넘나들었다.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 달마대사는 대사를 시가하는 이들이 음식에 탄 독약을 먹고 열반에 든다. 문도들이 용이나 정림사에 매 장했는데 3년뒤 위나라 대신 송운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용형에서 달마를 만난다. 달마는 송운에게 신 한쪽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황제가 달마의 무덤을 열어보게 하니 관이

빈채로 신 한쪽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왼쪽 그림은 신한쪽을 여겨에 맨 뱀발의 달마 대사를 송운이 용형에서 만나는 장면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지 3일만에 부활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의 부활에 놀라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림에 빈 관을 옮기는 모습을 그려넣어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학림 (예천 법화암 주지)



▷ 지오도작 '예수의 소생', 1304-5년. 스크로베니 예배당 소장.